



河英善

국제정치칼럼
1991-2011 ㉓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下

이 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인증하는 녹색출판 마크를 사용하였습니다.

河英善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저 자 | 하영선
발행자 | 하영선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12년 6월 1일 1쇄

편 집 | 신영환
디자인 | 유정화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 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대)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8-89-92395-24-3 94340
978-89-92395-22-9 (세트)

값 28,000원

河英善

국제정치칼럼

1991-2011 ㉓

인사말

국제정치 칼럼을 본격적으로 쓴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냉전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갑자기 막을 내렸다. 나는 당시 숨 가쁘게 전개되는 역사의 무대를 바라다보면서 단순히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탈근대의 서곡을 알리는 복합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예감했다. 1991년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고정 칼럼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동장을 새롭게 풀이하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1992년 초 새 시대를 새 부대에 담아달라는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3년 동안 국제정치 사설 100편을 썼다. 매주말 논설위원 회의에 참석 후 선택된 주제의 국제정치 사설을 두 시간 내에 써야하는 과제는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단에서 체험할 수 없는 국제정치 현장의 긴장감을 느끼고 논문쓰기와는 다른 언어적 실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5년부터 10년 간은 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시론들을 쓰다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일보에 2년 반, 조선일보에 4년 동안 “하영선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기명칼럼을 연재했다.

지난 20년 동안 300편의 칼럼과 100편의 사설을 쓰면서 늘 가슴과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19세기 한국 개화정책과 사상의 대부 역할을 했던 박규수가 남긴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차가운 눈으로 시무를 보고 비운 마음으로 고서를 읽는다)라는 글귀다. 국제정치를 제대로 알고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충고다. 시무와 고서는 상호보완적이다. 고서를 통해서 안목을 키우지 않고서는 시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시무를 모르면서 고서

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시무를 바로 보려면 충혈되지 않은 냉안이 필요하며 고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욕심 없는 허심이 필수적이다. 20년 국제정치 칼럼쓰기는 과거와 다른 북한국제정치학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 마련한 시각은 지난 20년의 국제정치와 남북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20년의 국제정치 칼럼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격동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알리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미소 중심의 냉전질서는 예상보다 빨리 미중 중심의 복합질서로 바뀌고 있으나 한반도의 남북한은 지도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냉전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시대착오적 진보와 보수는 복합시대의 빠른 변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철눅은 논쟁을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다. 국제정치 칼럼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쓰게 만든 원동력은 남남, 남북, 미중의 3중 공진(共進)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우선 국내의 남남 갈등부터라도 풀어보려는 꿈 때문이었다. 동시에 19세기 한반도 현실을 일기체로 남긴 황현의 《매천야록》이 그 나라의 시각에서 당대의 현실을 소상하게 전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듯이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 탈냉전과 복합의 20년사에 대한 작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국내의 상업출판사들이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 출판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속에 이숙중 원장을 비롯한 동아시아연구원 식구들은 아무런 계산 없이 출판을 자청했다. 대가없는 힘듦을 받아 준 여러분들에게 고마울 뿐이다. 그 동안 쓰고 대답했던 내용들을 모아 신는 것을 반갑게 허락해 준 언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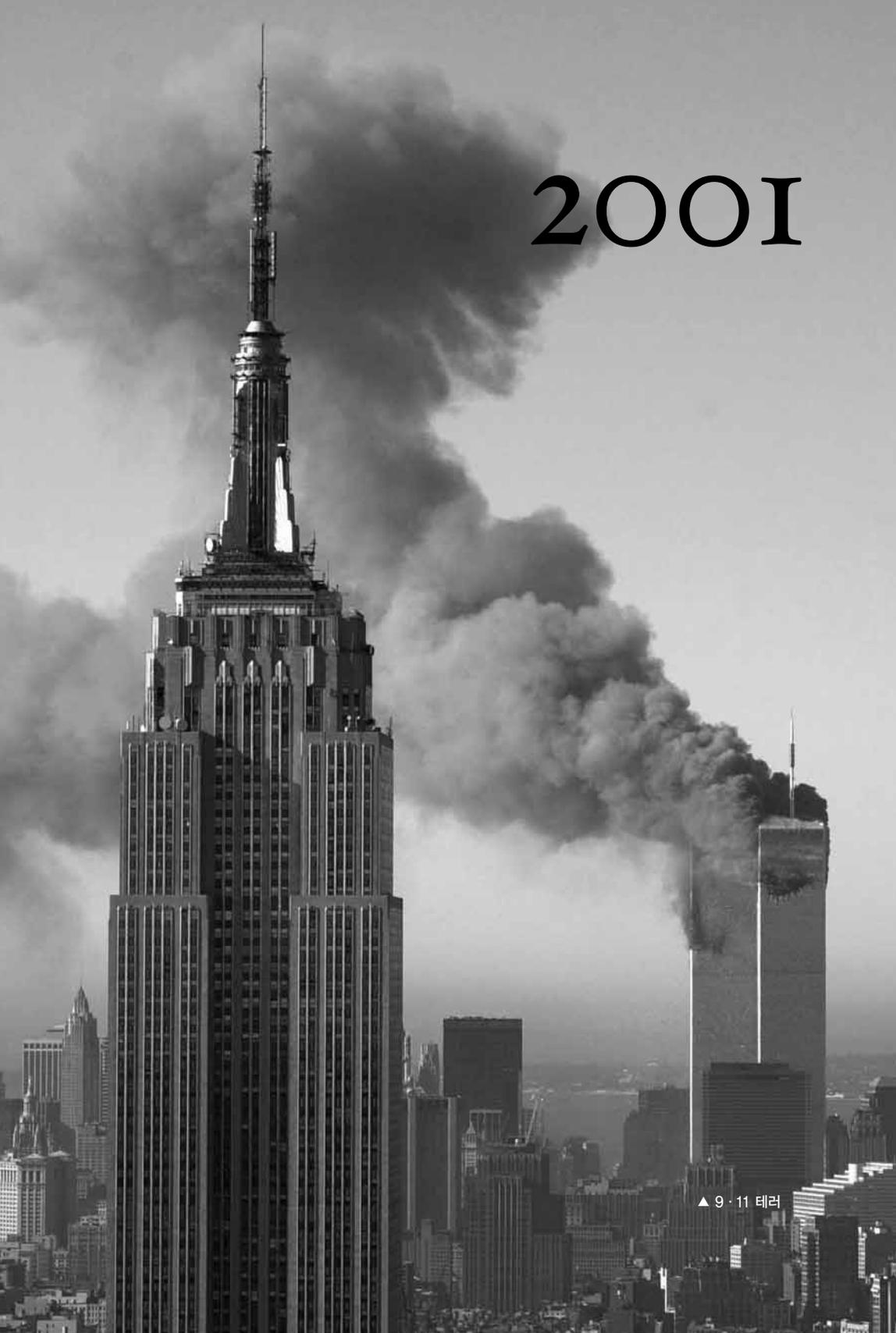
관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사설 100편의 게재와 사진사용을 도와 준 조선일보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20년에 걸친 신문자료들의 정리는 송지에 석사를 비롯한 제자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놀랄만한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두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동아시아연구원 신영환 출판팀장의 초인적인 노력이 함께 했다. 모두에게 진 빚들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어렵다고 늘 불평하면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칼럼을 정성스럽게 읽어 준 독자 여러분들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 싶다. 동시에 21세기를 걸머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을 미래의 독자로 초대하고 싶다.

2012년 5월

만청 하영선 晩靑 河英善

목차

2001년	009
2002년	055
2003년	107
2004년	185
2005년	221
2006년	277
2007년	337
2008년	391
2009년	453
2010년	505
2011년	579



2001

▲ 9·11 테러

2001년 10대뉴스

1. 9·11 테러
2. 미국 부시 대통령 취임
3. 미국 탄도미사일방어협정(ABM) 탈퇴
4. 중국 올림픽 유치 및 WTO 가입
5. 고이즈미 신사참배
6. 광우병, 구제역 공포 전세계 확산
7. 야당 재보선 압승
8. 도하라운드 출범
9.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움 선언
10. 남북관계 냉각과 장관회담 진통

시평

21세기를 내다보며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새해가 밝았다. 다가오는 한 세기를 여유 있게 내다보기에는 2001년은 '제2의 IMF관리체제'를 걱정할 만큼의 경제적 어려움, 남북한 관계개선의 불투명,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 공조관계의 재구축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삼중고의 위험성은 일차적으로는 지난 3년 간의 국정운영의 결과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지난 두 세기 한국 근현대사의 자기전개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삼중고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통령 주도하의 국정쇄신 방안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으며, 세기를 내다보며 근본적 극복방안을 찾으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적으로 21세기 한국형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도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질서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주도세력에 의한 21세기형 국가 재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전개였던 군사 권위주의와의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세력들에 대한 보상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 머리로 21세기를 준비할 겨를 없이 온 몸으로 쫓겼던 민주화투쟁의 대통령부터 386세대까지 21세기를 21세기답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21세기를 20세기 또는 19세기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진보세력으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역사적 임무를 완

료한 민주화 주도세력이 무리하게 당일치기로 공부해 21세기를 감당하겠다는 과욕을 버리는 데 있다. 21세기를 21세기답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세력의 등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만족할 수 있을 때 한국의 21세기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남은 2년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인가는 자명하다.

다음으로 닫힌 통일을 넘어선 열린 통일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역사는 한 국가로만 통하는 닫힌 통일이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지역·지방·개인과 모두 통하는 열린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국내 통일논의 수준은 19세기의 닫힌 통일론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올해로 예정돼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방문이 남북한 주민의 평화·번영·인권과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동시에 품는 열린 통일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남북한 정상의 화려한 만남도 21세기 한반도형 모범국가 건설에 별다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21세기의 열린 통일을 위해 또 하나 시급한 것은 통일방안 논의의 비현실성 극복이다. 6·15 공동성명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으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그 성패 여부는 방안의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에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복합공간의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1세기 세계정치는 새로운 세력균형론과 더불어 지구, 지역, 국가, 지방, 개인,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지구조정(Global Governance)론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간의식과 공간활용수준은 19세기의 세력균형론, 자유주의론, 제국주의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프로들의 바둑을 19세기 오목의 논리로 대결하려

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다. 21세기 복합공간의 한국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면 하루 빨리 19세기가 아닌 21세기 세력균형 방안을 터득해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지구와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복합공간의 한국형 지구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중앙일보 2001년 1월 26일

시평

북한의 “천지개벽”을 위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년 만에 상하이를 방문하고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하이는 천지개벽됐다”고 감상을 밝혔다. 21세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숙제는 북한이 상하이의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하루 빨리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 벗어날까

북한의 천지개벽을 위해서는 예상키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예상되지만 첫 걸음을 사고의 천지개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출발은 특히 자주화와 세계화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1997년 6월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글에서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소동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넘겨주는 대가로 저들의 권력과 안락을 유지하려는 전대미문의 매국매족 행위이다.” 따라서 이 글은 세계화 대신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세계화관은 98년 9월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관한 공동논설이나 2000년 4월의 '강계정신'에 관한 공동논설에서 강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 노동신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지구화, 국제화 또는 종속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복합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세계화관은 세계화의 부정적 가능성인 종속화만을 강조하고 긍정적 가능성인 지구화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21세기 지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닫힌 자주공간에 갇혀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천지개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1997년 제3차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자주적 세계화'를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세계화 없는 자주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한 결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주화 없는 세계화를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로 IMF관리체제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 생존전략을 '자주적 세계화'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21세기 북한이 진정으로 상하이의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북한에서 실현시키려면 '자주적 세계화'에 대한 본격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처음 수용했던 19세기적 의미와 현실의 자주화와 세계화는 서로 배타적인 면을 강하게 갖고 있다. 자주화는 스스로 주인이 돼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세계화는 특정국가 또는 계급의 이익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적 세계화'라는 표현은 성립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자주적 세계화' 실천 필요

그러나 21세기의 진정한 자주화와 세계화는 더 이상 19세기적 의미로 추진돼서는 불가능하다. 21세기의 자주화는 국가의 안과 밖인 세계와 시민사회 공간

을 최대한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동시에 21세기의 세계화는 단순한 국제화나 종속화가 아니라 지구화와 자주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천지개벽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19세기의 자주화와 세계화의 이분법적 사고를 졸업하고 21세기의 자주화와 세계화의 복합적 신사고를 체득해야만 한다. '자주적 세계화'를 통해 19세기의 자주화와 세계화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한다. 21세기 북한이 '광명성호' 대신에 '자주적 세계화'라는 신자주론을 쏘아 올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개성특구를 추진한다면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북한의 천지개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중앙일보 2001년 2월 16일

시평

미국을 정확히 읽어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한미 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에 이어 임동원 국정원장의 방미가 이뤄졌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3월 초순으로 확정됐다.

낙관할 수 없는 공조체제

한미 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 비판론, 그리고 신중론이 혼미한 속에 쉽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3월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러한 혼미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낙관론, 비판론, 신중론의 허와 실을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것에서



재생종이로 만든 책



값 28,000원



9 788992 395243

9 4 3 4 0

ISBN 978-89-92395-24-3
ISBN 978-89-92395-22-9 (세트)